광주문예회관에 공연만 보러 가나요?

광주문예회관 대극장과 소극장 사이에 자리한 문예회관 갤러리가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봄의 연가전'을 관람하고 있는 관객들의 모습.

다양한 기획전 문예회관 갤러리 인기

입소문 나면서 순수 전시 관람객도 많이 찾아
밤 9시까지 운영…공연 인터미션 때도 관람
4월 15일까지 전현숙 작가 등 '봄의 연가'전
'다완의 미학' '10만원 균일가'전 등 올 8개 전시

임성호 작 '철화 분청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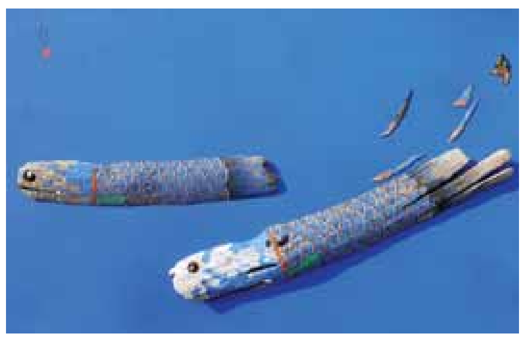
봄 기운이 완연했던 지난 24일 토요일 오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로비는 관객들로 넘쳤다. 이날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진행한 '쌀롱 음악회 쎄시봉' 공연은 트윈폴리오의 '웨딩케익' 등 포크 음악들을 클래식으로 편곡한 편안한 레퍼토리로 일찍부터 매진되는 등 인기를 모았다.

이날 조금 일찍 공연장을 찾은 김정아(45)씨 부부는 로비 옆 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보며 음악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김씨는 "항상 공연이 임박해서 공연장을 찾다보니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는데 봄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어 참 좋았다"고 말했다.

현재 열리는 '봄의 연가'전은 화사한 봄과 어울리는 작품들로 관객들 사이에 인기가 높아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는 관객들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광주문예회관(관장 서병천)이 운영하는 광주문예회관 갤러리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 2016년 7월 대극장과 소극장 사이에 문을 연 갤러리는 예전에는 리셉션이나 단체들의 연습공간으로 사용되던 장소다. 리모델링을 거쳐 갤러리로 변신한 공간은 다채로운 전시와 함께 관람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의자 등도 넉넉히 배치해 문화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는 관람객들이 너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작품들 위주로 구성해 눈높이를 맞췄고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회나 아트마켓 등도 구상중이다.



이정인 작 '물고기'

갤러리는 공연이 있을 경우에는 오후 1시부터 밤 9시(공연 없는 날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은 인터미션 시간에 갤러리에 들러 작품을 감상하기도 하고 차가 막힐 것을 대비해 일찍 극장을 찾은 관객들은 공연 시작을 기다리며 느긋하게 작품을 관람한다.

오는 4월 15일까지 진행하는 '봄의 연가'전에선 두터운 붓질로 붉은 매화를 화폭 가득 그린 서경란 작가의 작품과 스틸·브론즈 등을 활용해 봄의 이미지를 묘사한 금속공예가 김화영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과장된 인물상들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현숙 작가의 그림 앞에 선 관람객들은 작품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감상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밖에 주라영 작가의 유쾌한 설치작품과 김단비 작가의 몽환적인 한국화 작품도 색다른 느낌을 준다.

개관 때부터 갤러리 운영을 맡고 있는 김아연 큐레이터는 "갤러리에 대한 입소문이 조금씩 나면서 지금은 전시 자체를 보려고 오시는 분들도 생겨났다"며 "인터미션 시간에 들러 그림을 감상하시는 관객들도 많다"고 말했다.

문예회관 갤러리에서는 올 한해동안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지역 중견 작가인 정홍기·천명언 작가를 초청해 '풍경, 두 개의 시선'전(4월 18일~5월 13일)을 열며 5월에는 부부 작가인 이정인·이재은 2인전 '행복한 동행'전(5월16일~6월10일)을 개최한다. 버려진 나무 조각과 폐마네킹을 소재로 작업하는 두 사람의 작품은 온 가족이 재밌게 즐길 수 있어 가정의 달과 안성맞춤인 기획이다.

또 계룡산 도자예술촌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는 '계룡산 철화분청사기'전(6월13일~7월8일), '여름이야기'전(7월11일~8월5일), '다완의 미학'전(8월 22일~9월30일) 등이 예정돼 있다.

눈에 띄는 전시는 10월에 열리는 '한집 한 그림 아트마켓 : 균일가 10만원전'(10월10일~28일)이다. 광주문예회관이 올해 처음 진행하는 가을축제 관련 프로그램으로 지역 작가 60명의 회화, 공예, 조각 작품을 1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획이다.

그밖에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술단체들을 응원하는 미술단체 공모전(10월31일~11월25일, 11월28일~12월30일)도 두 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공연 일정은 광주문예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13-83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섬유예술 작가 이미자씨 첫번째 개인전

광주 양림동 515갤러리

▶'잇다- 器'

정성을 담아 한땀 한땀 바느질한 작품에는 친정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유년시절의 추억을 담고 있다. 꽃비 흐드러진 날에 길을 걷는 모녀의 모습은 아련하다. 다양한 색감의 천을 붙여 이야기를 만들고, 조각조각 이은 작품에는 기쁨과 눈물도 배어 있다.

섬유예술 작가 이미자씨의 첫번째 개인전이 오는 4월 6일까지 광주시 남구 양림동 515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의 제목인 '레가토(legato)'는 음악 연주 및 표기법에서 쓰는 이탈리아어로 음표가 부드럽게 연주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작가는 "내가 하는 바느질의 영역도 이와 같다. 잇고, 잇고, 잇는 이어짐의 연속이다. 시공간이 바뀌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 그것은 마치 나와 남이 연결돼 또 하나의 혈육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작가는 친정어머니의 상실에서 파생된 여러 감정들을 마치 연주되는 레가토처럼 바느질을 통해 연결했다.

조선대학교 창의디자인 공학 석사 과정을 졸업한 이 작가는 대한민국 침선 공예대전 대상(황금골무상) 등을 수상했으며 '양림 누리빛으로 물들다'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문의 062-654-300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극장 29일 '엄마의 공책' 등 2편 개봉

광주극장이 오는 29일 한국영화 2편을 개봉한다.

영화 '인투 더 나잇'은 '노브레인', '더 문샤이너스'를 거치며 대중과 평단 모두의 인정을 받아온 데뷔 20년 차 뮤지션 차승우가 밴드 '더 모노톤즈'를 결성하기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아낸 영화이다. 소중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 집을 포기한 자발적 홈리스 '미소' 역의 배우 이솜은 엉뚱하지만 사랑스러운 매력을 발산, 인생 캐릭터를 만났다는 호평을 이끌어냈다.

밴드에 참여하는 각각의 뮤지션들의 치열한 갈등과 음악세계를 가감 없이 담아내며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뜨거운 공감과 위로를 선사하는 영화로 주목 받고 있다.

'엄마의 공책'

'엄마의 공책'은 30년 넘게 반찬가게를 운영한 엄마의 사연이 담긴 비법 공책을 발견한 아들이 유독 자신에게만 까칠할 수 밖에 없었던 엄마 인생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이다. 모자 사이, 손맛이 담긴 반찬가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집밥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들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제3회 서울국제음식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다. 문의 062-224-5858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네팔 보드나트 탑 한국 원형복원 설명회

내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보드나트 탑 원형복원 추진위원회'(위원장 무명 스님)는 28일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네팔 보드나트 탑 한국 원형복원 유치 기념 설명회 및 대법회'를 개최한다.

보드나트 탑은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높이 약 36m의 탑으로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록돼 있다. 2015년 4월 88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규모 7.8 지진 때 부서졌지만 이후 1년 6개월만인 2016년에 복원됐다.

보드나트 원형복원추진위원회는 네팔 외에도 지진에 안전한 우리나라 전남지역에 유치해 영구보존하고자 2~3곳의 적정 지역을 찾고 있다. 원형 복원에 드는 비용은 3년간 3억불 전액 해외투자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네팔 전 문화부장관, 문화재총괄관리국장, 대만 투자자, 박주선 국회부의장,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불교신도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문의 010-9629-2707.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